

맑고 향기로운 무소유 정신 실천 20년

‘맑고 향기롭게’ 3월 30일 길상사서 기념식

“육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우리사회에 맑고 향기로운 마음의 연꽃을 피워보자”는 법정 스님의 원력을 따르는 시민들의 마음이 다시금 한자리에 모였다.

법정 스님이 우리사회의 변화와 종교화합을 위해 출범시킨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3월 30일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맑고향기롭게 근본도량인 서울 길상사에서 500여 대중이 모여 작은 기념식을 열고 창립 초기의 취지를 다시금 되새겼다.

‘맑고 향기롭게’는 1993년 8월 강원도 두메산골 토굴에서 정진하던 법정 스님의 ‘우리사회 맑고 향기로운 마음의 연꽃을 피워보자’는 원력에서 비롯됐다. ‘마음,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라는 아홉 가지 실천덕목을 바탕으로 1994년 구룡사에서 첫 모임이 시작된 이후 ‘맑고 향기롭게’는 서울과 부산, 대구, 경남, 광주, 대전 등지에서 자발적 모임 하에 진행됐다.

‘맑고 향기롭게’는 출범 이후 연꽃 스티커 나누기, 수련회, 음악회, 우리 꽃 나누기 등의 활동을 펼쳤다. 1996년 수단법인화 이후 회원들의 자발적 모임은 더욱 확대됐으며 장학사업 및 결식아동 밀반찬 지원,

복지시설 운영, 환경지킴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기념식에서는 참석 대중들이 맑고 향기롭게 실천덕목을 낭독하고 법정 스님의 생애를 다룬 영상 등을 보며 새로운 운동을 다짐했다. 법정 스님 생애 영상 상영과 함께 맑고 향기롭게 실천덕목 제창, 이사장 덕은 스님 인사, 정태환 길상사 총신도회장의 축하인사, 부름의전화 김정희 대장의 기념사를 비롯해 모범회원 표창 등이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자는 맑고 향기롭게의 취지를 반영한 독거노인 자살예방 기금 마련 저금통과 법정 스님 육성 오디오북 ‘산에는 꽃이 피네 CD’ 배포와 나눔기금 마련을 위한 ‘녹색나눔장터’ 등도 진행됐다. 이에 앞서 맑고 향기롭게는 3월 20일 국군문화진흥원에 군부대 배포용 도서 26,000여권도 기증했다.

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의 조영순(47)씨는 “스님의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 닿아 회원 활동부터 시작한 것이 20년이 흘렀다”고 말했다.

맑고 향기롭게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고 있다. ‘이웃들과의 나눔을 실천하



‘맑고향기롭게’가 3월 30일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대중들이 초심으로 돌아가 활동할 것을 서원하고 있다.



맑고향기롭게가 부처님오신날 개최한 ‘녹색나눔장터’



기념식에서 무료 배포된 법정 스님 육성법문CD

고 자연을 본래모습 그대로 지켜나가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사장 덕은 스님은 “20년을 맞아 법정 스님께서 강조하신 이웃과 나눔의 삶을 사

는데 집중하겠다”며 “회원들의 자발적인 순수시민모임으로서 우리 사회에 청정의 메아리를 울려 퍼지는데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헝가리 원광사는 3월 29일 현지에서 덕승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등 사부대중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웅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승산 스님 ‘세계일화’ 정신 헝가리에도

헝가리 원광사, 대웅전 상량... 설정 스님 등 150명 참석

동유럽의 한국불교 포교와 세계화 전진 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헝가리 원광사가 사격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헝가리 원광사는 3월 29일 현지에서 대웅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이날 상량식에는 덕승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을 비롯해 화계사 주지 수암, 수덕사 총무 정범, 수덕사 사회국장 현우, 예산노인복지관장 동준, 수덕사노인요양원 육통, 당진 영탑사 주지 초운, 국제전법단 사무국장 보련 스님과 신도 등 사부대중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불교 전통 방식의 삼보통청으로 시작된 행사는 참석자들의 석가모니 정근과 경과보고, 축사, 법문, 문화행사 순으로 진

행했으며 수덕사·화계사가 실시일만 모인 3000만원을 불사금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헝가리 카르파티아 산맥의 분지에 자리 잡고 있는 원광사는 승산 스님의 제자 청안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됐다. 유럽 최초의 한국사찰 건립을 발원하며 2005년부터 사찰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토지를 매입했다. 2006년에는 매입한 부지에 자리하고 있던 가족용 폐사를 임시법당으로 개조해 불사와 기도, 수행정진을 병행했다. 2010년 4월 선방이 문을 열고 한국 간화선 알리기에 매진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교양수업 ‘결혼과 가족’ 인기

한국 대학 100대 명강 선정

동국대 교양수업 중 가장 커플을 맺고 남녀관계를 이해하는 강좌가 화제다. 동국대 교양교육원 강의 중 ‘결혼과 가족’은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 이름을 빗댄 대학판 ‘우리 결혼했어요’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강의는 남녀 파트너 배정으로 시작되며 미팅을 진행하듯 자기소개 시간이 끝나면 각자 원하는 이성을 쪽지에 적어 파트너를 정한다. 원하는 상대가 서로 달라 커플이 되지 못하면 임의로 배정한다. 각 커플은 가상의 연인이지만 수업 시간에는 항상 옆 자리에 있어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주어진 ‘데이트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이 강의는 교육적인 효과를 인정받아 대학교육협의회가 선정한 ‘대학 100대 명강’에 선정되기도 했다.

강의를 기획한 장재숙 교수는 “최근 늘어나는 연인·가족 간 유·무형 폭력을 사전에 줄여보고자 이 강의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 지킴이 알고 보니 ‘도굴꾼’

경, 도굴범·불법취득자 검거 신라시대 불상 등 문화재 회수

수년간 국가 보조금을 받으며 문화재 보호단체 대표까지 맡았던 이가 10여년 간 문화재 유존지역 토지에 매장돼있던 불상, 도끼류 등을 도굴·유통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상북도 구미, 칠곡 등지에서 통일신라, 조선시대 등의 문화재를 도굴해 판매한 장 모씨(57) 등 3명과 도굴된 문화재를 알고도 사들인 개인사찰 주지 스님 권 모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월 1일 밝혔다. 도굴됐던 매장 문화재 236점은 회수 조치됐다.

장 씨는 2003년께부터 탐침봉으로 땅속 골동품 매장 여부를 파악하는 수법으로 틈틈이 도·토끼류를 도굴했으며, 훔친 문화재는 자신의 개인박물관에 전시했다.

이후 박물관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1년 지역 개인사찰 주지 권 씨에게 3억 원을 받고 팔았다. 그가 훔친 토끼 중에는 중앙



경찰에 압수된 통일신라시대 석조불상. 경찰은 통일신라, 조선시대 등의 문화재를 도굴해 판매한 장 모씨(57) 등 3명과 도굴된 문화재를 알고도 사들인 개인사찰 주지 스님 권 모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부 판서명이 기재된 조선시대 초기 ‘분정 인화 국화문 접시’가 있는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도 다수 포함됐다.

또한 장 씨는 몰래 문화재 도굴을 하면서

2005년 문화재 지킴이 단체를 만들어 문화재청에 보조금 지원단체로 등록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천3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올해에도 해당 지자체의 보조금 1천만원도 챙겼다. 지원받았다.

또 다른 파의자 박 모씨(61)는 일용직 근로자로 건축일을 하던 중 통일신라시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조약사여래좌상을 도굴해 보관하다가 권 씨에게 200만원에 넘기기도 했다.

권 씨가 복원 작업을 문화재 전문 수리업자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3000만원에 맡기면서 좌상에 2차 훼손이 일어나기도 했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이 좌상이 제대로 복원됐으면 시가 40억원에 달하는 준보물급 문화재가 됐을 것으로 평가했다.

광역 수사대는 “문화재라는 특성상 오래될수록 그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굴후 해당범죄에 대한 공소시효(10년)이 지난 뒤 유통되고 있다”며 “문화재 관련 범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4월 1일 배우 선우용여 씨에게 승려복지회 홍보대사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조계종, 승보공양운동 적극 독려 나선다

선우용여 씨 홍보대사 위촉... BTN 등과 캠페인

조계종이 승려 노후복지를 위한 승보공양운동을 적극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에 나선다.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종훈)는 4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집무실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하고 캠페인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이날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배우 선우용여 씨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했

다. 자승 스님은 “승려복지를 위해 승보공양운동이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공양운동 홍보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승려복지회는 불교신문(사장 성직), BTN불교TV(사장 구본일)와 승보공양 확산을 위한 홍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세 기관은 4월 동안 공동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신성민 기자

★ 감오년 귀(貴) 자녀의 출생을 축하합니다 ★



법사 방필석

신생아 작명

개명·아호·상호

역학개인지도

현명한 부모님은 소중한 자녀들을 귀(貴)하게 하느니라!
귀(貴)하고 소중한 자녀의 이름은
가적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이다.

□여유 있기를 기다린 후에 남을 구제한다는 것은 반드시 남을 구제할 날이 없을 것이다.
待有餘而後 濟人은 必無濟人之日이요

□여유 있기를 기다린 후에 개명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개명할 때가 없을 것이다.
待有餘而後 改名은 必無改名之時라

<p>방필석 대내외활동</p>	<p>前 대통령 손녀딸 작명 前 대통령 영식 아호 찬명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 서울 보명사 창건 공덕주</p>	<p>前 스리랑카 대통령 각 3회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문화부장관 초청방문 前 스리랑카수상과 함께 청와대 방문 ● 2011년 인도 세계불교대회 초청 방문</p>
----------------------	---	--

★ 자녀들의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계십니까? ★

자기 이름 뜻도 모른다면 어디서 무엇을 따로 알 것을 구하겠는가?
대다수 획수 작명은 말은 되지만 뜻이 맞지 않으니
뜻있는 곳에 참 이름이 있네! 뜻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썩어 트겠는가?

고객이 인정한 **한 장소에 25년 작명 국가 공인 한자 1급 6번 합격**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전화 02)739-8259, 02)738-5577 www.8259.co.kr **국내외 우편발송**
작명보시금 20만원 우리은행 : 306-07-194422 / 농협 : 053-02155-065 예금주 : 방필석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3(건지동) 동용문빌딩 201호(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 옆)
한국민속철학연구소 법사 방 필 석